

흥부와 놀부

옛날에 욕심쟁이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.

놀부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고 싶어서 흥부를 내쫓기로 마음먹었지.

"이놈 흥부야, 네 식구들을 데리고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!"

흥부는 놀부 앞에 엎드려 빌었어.

"형님,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나가란 말ियो?"

"이놈, 잔소리 말고 썩 나가거라!"

놀부는 쌀 한 톨 돈 한 푼 주지 않고 흥부를 내쫓았지.

흥부는 깊은 산골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어.

흥부는 나무도 하고 남의 집 일도 해 주며 쉬지 않고 일했지.

하지만 흥부네 식구들은 굶는 날이 훨씬 많았어.

"아이고, 아버지, 배고파 죽겠어요. 밥 좀 주세요."

아이들은 흥부만 보면 밥 달라 졸라 대며 울었어.



흥부는 식구들이 굶는 것을 보다 못해 놀부를 찾아갔어.

"형님, 식구들이 굶고 있으니 쌀 좀 주시오."

"뭐라고? 네놈에게 줄 게 있으면 차라리 우리 집 개를 주겠다."

"가율이 되면 꼭 갚으리다. 쌀 좀 주시오."

"네가 굶든 말든 난 모른다. 썩 나가거라!"

놀부는 몽둥이를 가져와 흥부를 흠씬 두들겨 패서 대문 밖으로 내쫓았어.

흥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빈손으로 돌아왔지.

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어.

제비 한 쌍이 날아와 흥부네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아 먹어.

그런데 어느 날,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제비 새끼들을 잡아 먹고 있었어.

구렁이는 입을 짹 벌리고 하나 남은 제비 새끼마저 막 잡아먹으려 했어.

"이놈! 썩 물러가거라!"

흥부는 몽둥이로 구렁이를 때려눕혀 제비 새끼를 구했어.



그러던 어느 날이었어.

제비 새끼가 등지에서 날기 연습을 하다가,

그만 땅에 툭 하고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.

흥부는 제비 새끼의 부러진 다리를 정성스레 헝겊으로 묶어 주었지.

제비 새끼는 곧 나아 무럭무럭 자랐어.

가을이 되자, 흥부네 제비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.

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어.

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흥부네 집 위에서 맴을 돌다가, 씨앗 하나를 흥부네 집 마당에 툭 떨어뜨렸어.

"아니, 이게 뭐야? 박 씨잖아."

흥부는 박 씨를 심었어.

박은 무럭무럭 자랐고,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붕 위에 둥근 박이 세 개 열렸지.

흥부는 식구들에게 말했어.

"우리 배고픈데, 저 박이라도 타서 죽이나 끓여 먹자."



흥부는 첫 번째 박을 타기 시작했어.

"슬근슬근 톱질이야, 어기어차 당기어라. 박속으로 죽 끓이고, 껍데기로 바가지 하세. 슬근슬근 실근실근 시르르르르....."

그러자 박이 짹 갈라지면서 와르르르 하얀 쌀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.

두 번째 박에서는 온갖 비단이며 옷감이 쏟아져 나왔어.

세 번째 박에서는 웬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나와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을 띄하니 지어 놓았어.

그래서 흥부는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지.

흥부 소식을 들은 놀부는 잔뜩 샘이 나서 흥부를 찾아왔어.

"네놈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리 큰 부자가 되었겠느냐!"

놀부는 흥부에게 호통을 쳤어.

흥부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 씨 덕분에 부자가 된 이야기를 놀부에게 다 들려주었지.

놀부는 자기도 큰 부자가 되고 싶었어.

놀부는 제집 처마 밑에 제비 둥지를 지어 놓고, 제비가 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렸어.

그러던 어느 날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둥지에 알을 낳았어.



놀부는 새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.

마침내 알을 깨고 제비 새끼가 나왔어.

제비 새끼가 무럭무럭 자라서 날기 연습을 하는데, 아무리 기다려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.

놀부는 참다 못해 제 손으로 제비 다리를 똑 하고 분질러 버렸어.

그러고는 시치미를 떼고 제비 다리를 비단 형겅으로 매어 주었지.

“아이고, 불쌍한 것. 빨리 나아서 내년 봄에 박 씨 하나 꼭 물고 오너라.”

가을이 되자, 놀부네 제비도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.

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어.

남쪽 나라에 갔던 제비가 놀부네 집으로 돌아와, 씨앗 하나를 놀부네 집 마당에 툭 떨어뜨렸어.

놀부는 박 씨를 심었어.

박은 무럭무럭 자랐고,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붕 위에 둥근 박이 세 개 열렸지.

놀부는 박을 타기 시작했어.

"슬근슬근 톱질이야, 복바가지 열리면서 금은보화 쏟아져라. 슬근슬근 실근실근 시르르르르....."



그런데 박이 찢 갈라지면서 우르르르 웬 거지 떼가 셀 수도 없이 나오는 거야.

거지들은 놀부네 집 쌀이며 돈이며 온갖 살림살이를 싹 긁어 갔어.

"아이고야, 이게 웬 난리냐."

놀부는 그래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, 두 번째 박을 탔어.

"이번에는 진짜로 큰 부자 만들어 줄 박이렸다. 슬근슬근 실근실근 시르르르르....."

그런데 박이 찢 갈라지면서 집채만 한 장수가 두 눈을 부라리며 튀어나오더니, 커다란 몽둥이를 휘둘러 놀부를 흠씬 두들겨 패 주었어.

놀부는 그래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, 세 번째 박을 탔어.

"이 박은 분명 금은보화가 그득할 테지.

슬근슬근 실근실근 시르르르르.....

그런데 박이 찢 갈라지면서 싹아아아 누런 동물이 강물처럼 쏟아졌어.

동물은 놀부와 놀부네 집을 송두리째 덮쳐 버렸지.

"아이고야, 나는 망했네."

놀부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.

흥부가 이 소식을 듣고 곧 달려왔어.

흥부는 놀부를 자기 집에 데려가 함께 살자고 했어.

놀부는 그제야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쳤지.

그 뒤로 흥부와 놀부 형제는 사이좋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.

